

권력순환과 국가발전 원리

“

권력의 소멸은 에너지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나 다른 권력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경 환

1. 권력동학과 권력창출

Leavitt(1978)는 인간의 행동은 원인이 있으며, 목표지향적이며, 동기부여 된다고 한다. 즉 그에 의하면 물체가 물리적 세계에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인간의 행동도 어떤 힘이나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며, 이는 동기(motive)에 의해서 일어난다. Berelson 등(1964)은 동기란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적 추진력으로써, 어떠한 목적을 위해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원천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인간의 행동이므로, 권력프로세스는 특정한 힘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힘 즉,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하는 힘이나 능력을 권력동학(power dynamics)이라 한다. 권력동학은 힘의 원천에 따라 내적동학, 사회동학 및 권력자체동학으로 구분된다.

1) 내적동학(internal dynamics)

내적동학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도적 또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힘에 관계된

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생명력, 생존력 및 생존본능의 세가지 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힘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권력프로세스를 야기한다. 예로서 생존력은 주로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활동에 관련된다. 따라서 생존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지향적 또는 감정지향적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지식, 사상, 이해력 및 감성과 같은 다양한 생존력이 존재한다.

인간의 생존본능은 주로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행동에 관계한다. 예로서 생존본능은 인간의 몸에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나 자원이 결핍될 경우 이에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생명력은 논의한 바와 같이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인간의 영적 욕구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지향적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권력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존력이나 생존본능을 형성케 하는 본질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예로서 생존력은 생명력에 기초해서 생존욕구에 의해서 유발된 권력프로세스를 통해 창출된 살고자 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생존본능은 생물학적 생존욕구에 따라 권력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된 생물학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에 내재하는 이러한 세가지 힘은 인간생존을 위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하는 본질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주체의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내적동학이라 한다.

2) 사회동학(social dynamics)

사회동학은 사회에 존재하는 의도적이거나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사회는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권력들은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이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예로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쟁 메커니즘은 비가시적 권력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률이나 경쟁지향적 권력프로세스를 유발케 한다.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연자원, 기후, 지정학적 국가의 위치, 인적자원과 같은 요소들은 국가의 경제적 권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제적 권력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권력프로세스의 원천이다. 예로서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의 지정학적 입지를 권력요소로 하여 싱가포르를 항공과 해상운송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국제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인적자원을 권력요소로 하여 권력프로세스를 통해 인적자원 분야에서 지속적인 갱신을 하여 경제발전을 도모 한다. 스위스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권력요소로 하여 유럽의 무역, 상업 및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이경환, 2001). 따라서, 사회의 세가지 권력은 사회생존을 위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 프로세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에너지를 사회동학이라 한다.

3) 권력자체동학(power-self dynamics)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의 다섯 결정요소의 상호작용 프로세스이므로, 이들 결정요소는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권력결정요소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권력프로세스에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각각의 권력 결정요소들은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한 권력결정요소에서의 변화는 다른 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파워프로세스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원천은 권력 프로세스를 통해서 형성된다. 각각의 권력결정요소는 권력프로세스를 위한 힘의 원천이 되므로 권력결정요소도 파워프로세스를 통해서 형성된다. 예로서 욕구는 내적요구에 따라 내적동학에 의거하여 권력프로세스를 통해서 형성 된다. 따라서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의 다섯 결정요소에 기초한 다섯 서브권력프로세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프로세스는 권력결정요소에 기초한 그 자체의 고유한 운동력(momentum)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동력을 권력자체동학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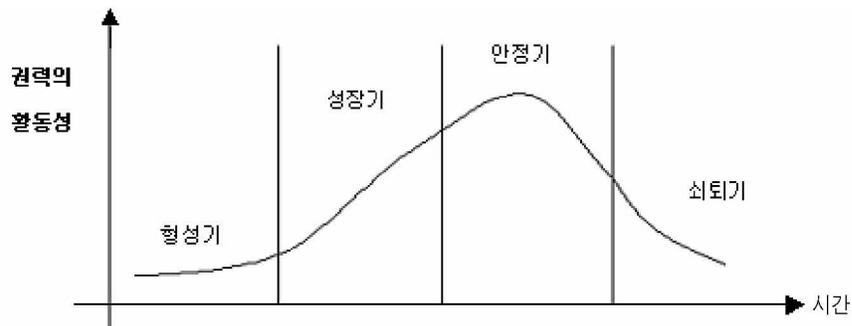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프로세스는 권력동학, 즉 내적동학, 사회동학, 권력자체동학에 의해서 야기된다. 권력동학은 인간의 내면이나 사회에 본능의 형태 또는 잠재적 귀속으로서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동학은 인간이나 사회구성원들의 내적 요구나 외부적 자극에 따라서 욕구를 유발한다. 권력동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권력프로세스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즉 권력동학은 권력요소를 선택하고, 명분을 위해 가치를 만들어 내고, 환경과 관계성을 조성하여 권력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예로서 1997년의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 국민은 애국심이나 전통 또는 국가관 같은 비가시적 권력요소를 중심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나 정책을 마련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력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된 권력의 원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력동학에 흡수되어 새로운 권력동학을 만들고, 이러한 동학은 다시 환경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로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에서 발생된 사회운동이나 조치 및 정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력동학에 흡수 되어 새로운 정치 및 경제, 사회제도와 같은 권력동학을 창출하였다. 때로는 이러한 권력동학은 환경이 되어 사회구성원들이나 사회권력동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권력순환과 권력수명주기

권력은 생성되어 성장하고 안정과 성숙을 거쳐 소멸한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권력순환이라 한다. 예로서, 역사에서 볼 때 탄생된 왕조는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왕권의 안정기를 거치어 소멸한다. 산업에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성장하여 성장기를 지나 쇠퇴한다. 그러나 권력의 소멸은 에너지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나 다른 권력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예로서 한 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이나 이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으로 대체되며, 한 산업의 쇠퇴는 새로운 지배적 산업의 등장을 의미한다.

권력수명주기(power life cycle)는 권력의 형성, 성장, 안정(성숙) 및 쇠퇴의 네 단계의 권력변환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력수명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2-1>과 같이 흔히 S자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림2-1〉 권력수명주기(power life cycle)

권력수명주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권력의 형성이나 생성기이다.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형성은 권력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권력동학과 권력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권력동학은 권력프로세스를 위한 에너지와 여건을 조성하며, 권력의 속성은 권력프로세스의 행동방향을 제시한다.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의 다섯 결정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권력의 생성시기는 이들 다섯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권력의 속성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권력형성기에는 권력의 창조속성의 작용이 보다 활발하다.

권력은 목적지향적인 능력이므로 형성된 권력은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장이나 세력확산을 위한 노력을 한다. 권력의 이러한 노력은 권력의 속성에 의존한다. 예로서 기업성장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은 고객의 요구나 가치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고객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은 권력프로세스에 기초한 권력속성

작용에 의존한다. 즉 권력프로세스는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의 요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권력원천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다. 권력의 창조속성은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권력의 창출에 관계되며, 보존속성은 차별화된 고유한 가치의 창출에 관계된다. 이러한 속성이 권력프로세스에 작용할 때 고객요구나 가치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된다. 고객과 기업의 유기적인 관계는 이들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력결합은 권력성장의 직접적 수단이다. 고객과 기업간의 이러한 결합은 권력의 결합 또는 지배 및 귀속 속성에 의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다섯 속성의 능률적인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은 권력으로 하여금 성장기에 진입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권력의 성장은 Concordance Process에 의존한다.

권력성장은 Concordance Process가 역동적일수록 또한 권력들이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킬수록 촉진된다. 권력프로세스는 권력동학에서 유발되므로 권력의 동학이 역동적일수록 Concordance Process가 활성화 된다. 권력의 영향력은 권력핵

이 존재하고 상대욕구를 충족시킬 때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권력이 추구하는 가치가 긍정적일 경우 이러한 영향력은 오래 지속된다(이경환, 2001).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의 긍정성은 권력자체의 긍정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권력행사자 즉 권력핵의 권력행사 의도에 보다 의존한다. 따라서 Concordance Process는 권력핵의 의도가 긍정적이고 또한 그의 내적동학이 강할수록 촉진된다. 예로서 조직에서 실현 의지가 강한 권력의 핵이 존재하고 또한 소수 추종자의 이해를 만족시킬 경우에도 Concordance Process가 유발된다. 그러나 권력의 핵이 없을 경우, 전체 구성원들 중, 30~50%의 구성원이 의지가 있을 때 Concordance Process가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는 내적 동학이나 사회적 동학이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지배될 때, Concordance Process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논의 하였다. 따라서, 권력동학이 약해지거나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 중 어느 한가지 이상에 지배될 때 이는 Concordance Process를 저해하므로 결과적으로 권력의 성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권력성장의 감소는 권력으로 하여금 성숙기로 진입하게 한다. 권력의 성숙기는 권력의 성장이 멈추는 안정기를 의미 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흔히 한, 두 개의 지배적 권력이 다른 권력을 귀속시킨다.

권력의 형성과 성장은 권력프로세스의 다섯 가지 권력형성 요소와 권력핵의 동적작용에 의존한다. 권력의 핵을 구성하는 권력주체의 수명은 유한하므로 권력핵의 소멸과 함께 권력이 소멸하거나, 권력프로세스의 다섯 가지 결정요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급작스럽게 깨어지거나 변화할 때 권력의 소멸은 시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생성과 소멸은 그 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생성과 소멸은 생존질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권력은 보다 안정적이고 수명도 길다.

권력의 순환은 주기적 순환(a periodic cycle)과 비주기적 순환으로 구분한다. 권력의 주기적 순환은 권력이 권력수명주기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 형성, 성장, 안정 및 소멸의 단계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권력의 주기적 순환은 외부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욕구,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또는 자생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주기적 순환은 권력의 다섯 가지 속성에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권력수명주기의 형성, 성장, 안정 및 소멸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므로 권력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이에 근거하여 권력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권력의 비주기적 순환은 권력수명주기에서 권력의 형성, 성장, 안정단계가 불규칙적으로 또는 다단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주기적 순환은 주로 외부적 권력이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권력의 순환을 만들어 가거나, 권력의 속성을 따르지 않는 파행적 동학에 의한 흐름일 경우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비주기적 순환에 의한 파행적 동학은 군중운동, 유언비어(rumor), 폭도, 유행(fashion)과 같은 집합적 행동(collective behavior)을 포함한다. 이러한 파행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급격히 팽창하여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멸한다. 파행적 행동은 권력으로서의 구도는 가지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경환, 2001).

세포가 움직여야 피와 살과 뼈를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유

형들의 권력들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동적 작용을 할 때 그 사회는 살아 있다. 사회는 사회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공간적 상황을 제공하고 권력의 순환(권력의 형성, 성장, 안정 및 소멸)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작은 권력은 큰 권력 내에서 순환하고, 큰 권력은 보다 큰 권력 내에 순환한다. 이러한 순환은 사회의 생존질서를 의미한다.

3. 권력순환과 국가발전

사회는 개인, 기업, 조직 및 정부와 같은 권력주체들이 창출한 다양한 권력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발전은 이러한 권력들이 권력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고 이 순환이 긍정적인 생존질서를 형성할 때 이루어진다. 예로서 기업의 신기술은 기업의 경제적 권력이다. 이러한 기술이 주기적 순환을 할 경우 이 기술은 사회에 널리 활용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생성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긍정적인 생존질서를 창출하여 기업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제도주의자들은 제도발전을 통해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제도는 가시적 권력이다.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창출한다. 이 제도가 사회에서 주기적 순환을 통하여 경제주체들간의 경쟁과 협력의 순기능적 경제질서를 유발할 때 국가경제는 발전한다. 이러한 예에서와 같이 국가발전은 긍정적인 권력의 주기적 순환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의 핵심원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 순기능적 권력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는데 있다.

앞에서 우리는 권력의 주기적 순환은 Concordance

Process에 의존하고 Concordance Process는 권력 동학에 권력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유발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권력의 주기적 순환을 위해서는 Concordance Process를 방해하는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여야 한다. 지적인 바와 같이 권력 동학이 비 합리적 조건에 지배될 경우 이는 권력의 파행적 동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파행적 동학으로 인해 형성된 권력은 리더가 존재하거나 감정이나 군중심리가 이념으로 대체될 경우 이들은 권력의 속성에 따라 주기적 순환을 할 수가 있다(이경환, 2001).

권력순환에서 역기능적 권력은 역기능을 흔히 유발한다. 따라서 긍정적 권력순환을 위해서는 역기능적 권력의 제거가 필요하다. 역기능적 권력의 제거는 논의한 바와 같이 순기능적 지배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 권력의 의도적 또는 강제적 소멸이나 파괴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로서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나 일본에 의한 한국의 언어말살 운동과 창씨 개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 권력의 강압적 제거는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수반한다. 따라서 역기능적 권력의 소멸이나 제거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권력의 수명주기를 단축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체가 노쇠할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권력이 소멸 주기에 들어설 경우 소멸을 받아들인다. 부정적인 권력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폭동이나 폭력과 같은 파행적 권력동학이 권력의 수명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또한 권력프로세스의 다섯 가지 권력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변화시킴으로써 권력의 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권력을 제거한 것 만으로 권력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의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권력과 권력주체의 긍정적인 의도가 결합이 될 때 나타난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명은 이러한 자신의 가치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 이렇게 획득된 가치는 생명으로 하여금 다른 생명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케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산하는데 생명의 본질이 있다. 권력프로세스는 논의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객체가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권력프로세스는 이러한 생명본질을 실현하는 긍정적 프로세스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권력프로세스와 권력주체의 긍정적인 의도의 결합에 의한 권력순환은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프로세스와 권력주체의 긍정적인 리더십은 국가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의 순환질서와

concordance process는 생존질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생존질서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인류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생존질서가 파괴되어도 권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러한 권력은 생존할 수 있다. 즉 생존질서가 파괴되어도 욕구가 강하거나, 욕구가 변해도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 이러한 권력은 생존할 수 있다. 예로서 정치적 권력의 경우 기존의 정치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욕구가 변화하여도 기득권 층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이러한 권력은 생존이 가능하다.

REFERENCES

- 이정환(2001), 국가생존전략, 도서출판 두남
- Leavitt H. J., Managerial Psychology, Univ of Chicago Press 4th ed. 1978
- Berelson B, G.A. Steiner, Human Behavior, N. Y. : Harcourt-Brace & World Inc. 1964. 